

하나은행,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 '더 퍼스트' 서비스

자산관리·기업승계·유산기부 등 전문가 상담 지원



하나은행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고객들의 자산관리 전략을 제공코자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인 '더 퍼스트'(The First)를 시행한다.

이는 VIP 고객에게만 제공되던 서비스로, 이번 확대 개편에 따라 모든 고객이 생활 유형에 따른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자산운용, 상속·증여 설계, 기업승계, 후견·유산기부, 글로벌 재산관리 등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위해 외부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전문 인력을 대폭 강화했다. 또 유수의 법무법인과 지문 계약을 통해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기업고객도 통합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고객 초청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면을 넓혀갈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은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방 및 해외 거주 손님은 화상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맞는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자산관리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①